

# 사랑이여 메

Issue 137 \ September 2018 60

어르신 치매 예방  
미리 도와드립니다

포상금 기부 경북소방본부  
화재는 진압하고  
나눔은 지킵니다







# 기억의 방

언젠가부터 우리 할머니는 나를 잊었다.

알아보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연신 고맙다고 하시는 우리 할머니

날 착한 청년이라며

자꾸 고맙다고만 하신다.

하지만 난 기억한다.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할머니가 날 잊었어도

난 할머니를 잊을 수 없다.

할머니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시간의 흐름에 강산도 바뀌었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내 기억도 변하지 않는다.

오늘 내 기억의 방 한 곳에 모셔둔

할머니를 꺼내본다.

나를 기억했던 시간에도

나를 잊었던 순간에도

환한 미소를 지으신다.

목차



08



First Person

정부 포상금 이웃에 내준 경북소방본부

12



현장

제17회 박상민·황기순의 사랑더하기 나눔행사

14



특집

치매극복 지원 사업

20



포커스

2018 MBC 1318 사랑의열매 캠프

22



화제

배우 채수빈의 아름다운 재능기부

24



착한기업

CJ

30



희망스토리

잡지 <보:소> 만든 정신장애인 보:소

32



착한일터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34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

전남 장성



Cover



소방관이 입는 화재 진압복의 무게는 산소통과 신발까지 포함해 25kg에 달한다. 무거운 장비를 입고 출동 준비를 마친 경북소방본부의 대표 나눔 영웅 김우현 소방사(왼쪽부터), 김명삼 소방장, 김수현 소방사



38

The Page

입이 찢어진 남자가 전하는 나눔의 미소

40

Alive CCK (Community Chest of Korea)

경기 사랑의열매

44

나눔 리포트

풀뿌리 모금의 뿌리 심자

46

나의 나눔 이야기

돼지 키워 번 소중한 돈으로 자녀들 배우라고 나눔 실천

47

사랑의열매 뉴스

중앙회·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7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58

독자 페이지



# 사랑의열매 vol. 137 2018 / 9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8년 9월 / 통권 137호  
발행처 사랑의열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5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대외홍보본부  
구독안내 tel 02-6262-3000 fax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편집디자인 조선뉴스프레스 tel 02-724-6783  
인쇄 (주)타라TPS tel 031-939-2049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자료는 사랑의열매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6회 전국 초·중·고 학생

#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2018.9.3.(월) ~ 10.12.(금)

“나눔영상 시청하고  
공모전 응모하자”



## 가. 응모기간

응모자격 | 전국의 초·중·고 학생  
응모기간 및 부문 | (세부내용은 별첨의 안내문 참고)

## 나. 응모부문

2018.9.3.(월) ~ 10.12.(금)

### (1) 초등학생 부문

나눔을 주제로 한 자유형식의 작품  
(시, 수필, 일기, 편지, 감상문, 그림이 포함된 글 등)

### (2) 중·고등학생부문

나눔을 주제로 한 자유형식의 작품

※ 나눔영상 시청 후, 나눔에 대한 나만의 생각, 실천경험,  
각오, 느낌 등을 자유형식의 글로 작성하여 응모

### 영상보는곳

- 유튜브 (<http://www.youtube.com/>)에서  
'제6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검색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홈페이지 공지  
(<http://www.chest.or.kr/>)

※ 분량 : A4 2장 이내

(손글씨 작성가능,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지 글씨크기 11 포인트 기준)

## 다. 응모방법

### (1) 제출서류

- 학 생 : 작품 1편, 참가신청서 1부  
(지정양식/개인정보보호법률 준수)
- 지도교사 : 나눔교육 지도교사상 추천서식 각 1부  
(추천대상자 명부, 공적조서, 동의서)
- ※ 응모양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2) 접수방법

- 우편접수에 한함
- ※ 2018.10.12(금)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 (3) 접수처

- 나눔공모전 운영국 “생각나눔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9길 53, 4층 401호 (우)05611
- ※ 인터넷 및 팩스 접수 불가하며, 응모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음.

### (4) 문의처

- 생각나눔소 전화 : 02-407-9006
- 이메일 : [nanum@goodcontest.co.kr](mailto:nanum@goodcontest.co.kr)

# 나눔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400만 이웃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신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80-700-1212

사랑의열매 재능기부자  
배우 채수빈

First Person

글 한상현 사진 이경호







경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부 포상금 이웃에 내준 경북소방본부

# 화재는 진압하고 나눔은 지핀다

나눔과 소방은 닮았다. 나의 것을 남을 위해 나누는 행위가 그렇다.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 또한 닮았다.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소방. 그들이 나눔까지 실천하고 있다. 정부 포상금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경북소방본부를 찾아갔다.

## 지능형 소화전 개발 포상금 200만 원 사랑의열매에 전달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유행가의 한 소절처럼 24시간 365일 국민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이들이 있다. ‘119’만 누르면 어김 없이 나타나는 소방관들. 불이 난 화재 현장은 물론이고 폭염으로 인해 마음까지 타들어 가는 농가에 물을 공급하는 일까지 국민이 필요로 하면 달려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은 업무 자체가 섬김과 헌신의 삶이다. 그런데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달의 기부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8월 8일 오후 경북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소방본부(경북소방본부)를 찾아갔다. 경북도청에 있는 경북소방본부 상황실의 커다란 모니터에는 지역의 모든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다. 주황색 제복을 입은 소방공무원들이 한순간도 소홀함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앞섰다.

경북소방본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 일하는 방식 및 협업 우수 사례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200만 원 전액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이에 대해 경북소방본부 최병일 본부장은 “포항에서 목욕탕을 하시는 분이 경북소방본부에 구급차를 한 대 기증을 해주셨다”며 “우리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정부 포상금도 받았고 직원들이 모두 공감을 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최 본부장은 “재난

“남을 돕는 것이  
소방공무원의  
주업무이기에 나눔과  
소방은 많이 닮았다.

이웃을 돕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방관으로 남고 싶다”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 마음이 늘 안타깝다”며 “불의의 화재나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부 취지를 전했다.

경북소방본부에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사업은 ‘재난 끝든타임 확보를 위한 IoT(사물인터넷)기반 지능형 소화전 개발’이다. IoT 기반 지능형 소화전은 내부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소화전 상태를 원격으로 관리,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정해진 온도에서 내려가면 자동으로 가열이 되어 소화전 동파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차량감시센서를 통해 안내방송을 해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 2012년엔 무려 1억 9,000만 원 기부

이들이 지능형 소화전을 개발하게 된 동기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2015년 1월 영주시장 화재 사고 때 소화전이 열어서 물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화재 피해가 컸던 일이 있었다. 지능형 소화전 개발에 참여한 김명삼 소방장은 “경북소방본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한 끝에 IT를 접목한 소화전을 개발하게 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소방공무원들의 열정이 지능형 소화전 개발을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경북도소방본부 소방공무원들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수당으로 나온 금액의 일부를 모아 성금 1억 9,000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 기부금으로 기초생활수급가정에 7,000만 원 상당 소화기와 화재 경보 감지기를 제공했다. 또한 화상아동들에게 화상치료 의료비로 6,000만 원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5,000만 원을, 필리핀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 구호 성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 경북 소방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600만 원을 화재 피해를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위 쌍둥이 기부천사 김수현(앞쪽) 김무현 소방사. 지난해 둘이 동시에 첫 월급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해 화제가 됐다. 아래 최병일 경북소방본부장(왼쪽)이 행정안전부 주최 일하는 방식 및 협업 우수사례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 수상으로 받은 표상금 200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하고 있다.

#### 김수현·무현 쌍둥이 소방관, 지난해 첫 월급 내놓기도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 개인적인 기부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이들이 쌍둥이 기부천사다. 김수현·김무현(31) 소방사는 지난해 9월 소방관으로 임용된 후 첫 월급을 전액 기부해 화제가 됐다. 동생의 권유로 소방관이 됐다는 김수현 소방사는 “첫 월급을 고생하신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권유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심했다”며 “어렸을 때부터 기부를 많이 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수현·무현 형제의 아버지는 경북 영주시 ‘아너 소사이어티’ 1호 회원인 김점곤 신도물산 대표다. 지난해 아버지와 쌍둥이 형제가 같은 날 동시에 기부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기도 했다.

형과 함께 경북소방본부 임용에 다시 도전을 해 합격한 김무현 소방사는 “부산에서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형의 시험공부도 돕고 함께 근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경북소방본부 시험에 다시 도전하게 됐다”며 “우리의 작은 기부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기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형 김수현 소방사는 아버지에 이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월급으로 가능한 일일까? 김 소방사는 “경북 사랑의열매에 5년 동안 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을 해 아너 회원이 되는 것”이라며 “저 혼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까지 온 가족이 함께 기부에 참여하는 패밀리 아너 개념이다”라고 밝혔다. 쌍둥이 기부천사는 “남을 돕는 것이 소방공무원의 주업무이기에 나눔과 소방은 많이 닮았다”며 “이웃을 돕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방관으로 남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올해 경북소방본부는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와 국군장병위문 등 자발적 성금 모금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때마다 소방관서별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늘 나눔을 돕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한강에서 구조활동을 하다 숨진 소방관들의 영결식이 있었다. 재난 현장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다 죽음을 맞이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소개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아낌 없이 주지만 하는 소방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떠오른 뜻깊은 시간이었다. ❀



최병일 경북소방본부장

###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야죠”

최병일 경상북도소방본부 본부장은 29년간 소방 업무를 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경북에 온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그새 애정이 두텁게 쌓였다고 한다.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된다고 했다. “소방은 국민과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행정입니다. 업무에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모든 소방관이 재난과 재해의 최전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핵심 가치로 여기지만 경북소방본부 소방관들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우선한다고 했다. 첫째, 현장에 강한 소방이다. 현장에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함께 하는 소방이다. 주민 속 깊이 들어가 주민들의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다. 셋째, 존중받는 소방이다. 지금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에게 존중받고 믿을 수 있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복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는 최 본부장은 나눔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소방서장 근무 시절 보육원 봉사활동을 주도하고 수재민 돕기 등 현장으로 달려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도 했다. 이번 포상금 기부도 같은 맥락이다.

“다른 행정은 국민이 원하면 스스로 찾아오지만 소방행정은 국민이 원할 때 우리가 직접 현장으로 갑니다. 어르신들의 아파트 문까지 따주는 건 행정력 낭비라고 핀잔하기도 하는데 90세 어르신에게는 그것이 재난일 수 있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재난인 겁니다.”

최 본부장은 국민들에게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망과 생명과 안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되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책임지는 소리로 인식되길 바란다”며 “24시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불 끄는 소방관으로 신뢰받는 경북소방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글 홍정기 사진 최향석



## 제17회 박상민·황기순의 사랑더하기 나눔행사 **폭염도 막지 못한 이웃사랑 고마워요♪ 행복해요♪**

올해로 17년째. 주체할 수 없는 따미 흐르는 도중에도 황기순씨는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더해져 숨이 턱턱 막히는 가운데서도 박상민씨는 쉬지 않고 자신의 히트곡을 들려준다. 무엇이 이들을 이 무더위에 거리에 서게 했을까.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고되지만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이들이 나눔행사를 하는 이유다.



2

3

서울·인천 등 5곳에서 길거리 콘서트… 동료 연예인들도 참여  
 기록적인 무더위로 한반도 전체가 찜질방이던 지난 8월 12  
 일 일요일 인천 월미도. 예년 같으면 더위를 식히러 이곳을  
 찾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 서  
 있기도 버거운 날씨는 인적마저 뜸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도심 빌딩 숲보다는 나오려니 하는 생각에 월미도를 찾은  
 사람들도 에어컨과 그늘이 있는 카페나 파라솔 밑으로 숨기  
 바빴다.

작은 공연을 위해 마련한 중앙무대에 없던 대형 그늘막이  
 쳐졌다(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월미도상인연합회에서 이  
 날 나눔활동을 위해 직접 설치해 줬다고 한다). 그나마 햇빛  
 이라도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여긴 시간도 잠시. 얼마 지  
 나지 않아 온몸이 땀으로 젖는다. 더워도 너무 덥다.

이런 무더위에 개그맨 황기순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연신  
 흐르는 땀을 닦을 시간도 없어 목에 수건을 두른 그는 사람  
 들을 불러 모은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여려  
 분 더우시죠? 잠시 후 이 무더위를 식힐 공연을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제17회 박상민·황기순 사랑더하기’ 나눔행사다. 지난 2000  
 년 황기순씨가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며 성금을 모아 휠체  
 어 52대(600만 원 상당)를 장애인 단체에 기부하면서 시작

1 가수 박상민씨(왼쪽)와 개그맨 황기순씨가 지난 8월 12일 인천 월미도에서 사랑더하기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사랑의열매 대학생 기자단 열매톡톡3기 멤버들이 지난 8월 12일 진행된 박상민 황기순 사랑더하기 행사에 참여해 직접 안무를 짠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3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 월미도광장에 나들이 나온 시민이 모금함에 성금을 넣고 있다. 4 지난 8월 16일 황기순씨(왼쪽)와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박상민씨가 사랑더하기 나눔 행사 모금함을 개봉하고 있다.



된 이 행사는 이후 가수 박상민씨 등 많은 연예인이 참여하면  
 서 자전거국토대장정과 길거리콘서트 등을 통해 지난 17년  
 간 자그마치 총 5억 3,000여만 원을 모금해 휠체어 2,205대와  
 연탄 10만여 장, 생계비를 지원했다. 이날 거리공연에는 사랑  
 의열매 대학생 기자단인 열매톡톡3기 멤버들이 참여해 함께  
 행사를 돕고 사랑의열매를 홍보하는 등 자원 봉사활동을 했  
 다. 또한 이들은 직접 안무를 짠 플래시몹을 선보이기도 했다.

#### 4,000여만 원 모금… “작년보다 액수 늘어 뿌듯”

올해 거리공연은 인천 신기시장(8월 9일)을 시작으로 ▲서울  
 평화시장 전태일 다리(10일) ▲인천 월미도 공연장(11일, 12  
 일) ▲서울 남대문 삼익패션타운(13일, 14일) ▲인천 아라뱃  
 길(15일)에서 진행했다. 행사에는 가수 조항조·박상철·김국  
 환·김혜연·김민교씨 등이 재능기부로 동참했다.

이렇게 모금한 금액은 4,006만 8,720원. 박상민, 황기순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찾아 모금  
 함을 개봉하고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에게 모금액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박상민씨는 “매년 할 때마다 힘들지만  
 여름이면 어김없이 거리에 나와 있다”며 “올해는 특히나 폭  
 염으로 힘들었지만 작년보다 더 모금이 돼서 기쁘다”고 전했  
 다. 황기순씨 역시 “항상 이때만 되면 문자 하나라도 함께해  
 주는 동료 연예인들에게 감사하다. 휠체어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라인 모금에도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 연말까지 ‘카카오 같이가치’와 함께 온라인 모금 계속

김연순 사무총장은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  
 해 거리모금을 이어 나가는 두 분의 열정에 감사하다”며 “올  
 해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많이 모금된 것이 여  
 기 계신 분들의 나눔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웠기 때문일 것”  
 이라고 밝혔다.

‘박상민·황기순의 사랑더하기’ 캠페인은 ‘카카오 같이가치’  
 와 함께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모금도 진행한  
 다. 모금 참여는 카카오 같이가치 홈페이지(<https://together.kakao.com>)에서 가능하다.☘

특집\_치매극복 지원 사업

글 한상현 사진 사랑의열매, 각 기관



## 어르신 10명 중 한 명꼴로 찾아오는 불청객 '치매' 미리 차단하고 관리해 드립니다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다.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들을 소개한다.



금방 밥상을 물리고 돌아서서 밥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치매 노인의 모습이다. 과거에는 이런 치매 환자를 ‘노망난 늙은이’로 치부하며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치매가 심각한 뇌 질환으로 인식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치매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한 후 1년 만에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250여 곳으로 늘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에게 후천적 원인으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다.

지난 4월 중앙치매센터가 발행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11만 2,972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8만 1,159명으로 13.3%를 차지하며 이 중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약 66만 명이라고 한다.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의미다.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비용만 한 해 13조 6,000억 원이 든다. 이번 호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중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 충북광역치매센터 ‘기억지킴이’ 사업

치매 위험 높은 75세 이상 홀어르신 대상

1대1 케어도 하고 경로당 돌며 예방 활동도

대한민국 치매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첫 번째가 ‘치매’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36%만이 치매조기검진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다. 실제 치매조기검진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두렵지만 ‘나는 아닐 거야’ 하는 불감증이 치매선별검사를 꺼리는 이유로 보인다. 이에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는 충북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숨어 있는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하고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위해 ‘기억지킴이’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5세 이상 홀어르신은 타 연령보다 치매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 흔히 치매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초기 노령인구에서는 전체 치매유병인구에 대한 비율이 낮다. 중앙치매센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대에서는 3%에 머무르지만 75세 이상은 12%로 증가하며 85세 이상은 40%로 급격히 높아진다. 특히 홀어르신은 치매 예방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 이문옥 청주상당노인복지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색칠 공부, 도형 맞추기 통해 인지 능력 높아져 보람”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활동에 만족도가 높아요. 어르신들이 기다리시거든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은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북광역치매센터에서 하는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과 색칠 공부, 도형 맞추기 등 인지 능력을 높이는 활동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보람을 느낍니다. 생전 처음 자신의 이름을 써봤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와 같아요. 숙제도 얼마나 잘 하는데요. 함께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평소 어르신들 대부분 TV를 보거나 주무시는데, 치매 예방을 위한 교재로 공부하면서 인지 능력이 좋아지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충북 청주시에 홀로 사는 장철호(87·가명) 할아버지는 집 밖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인지력도 떨어진다. 글자를 떠듬떠듬 읽을 수는 있지만 쓰지는 못했다. 가위로 종이를 오리는 것도 서툴고 같은 모양의 도형을 찾는 것도 힘들어했다. 충북광역치매센터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사업을 통해 치매선별검사를 해보니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현재 담당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함께 기억지킴이 워크북을 하며 인지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문옥 생활관리사는 “처음엔 색연필을 잡는 것도 어려워했는데 6개월 함께하면서 점점 변화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용정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 “보건과 복지의 원활한 전달체계가 이뤄진 모범사례”

“기억지킴이 사업은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했지만 보건과 복지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기 위한 사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홀어르신은 보건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충북광역치매센터는 보건과 복지가 갖고 있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 홀어르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노인 복지에서 전달체계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홀어르신에게 접근하고 1:1 치매 선별검진을 해 인지저하자를 찾으면 이를 치매안심센터가 밀도 있는 접근으로 치매진단과 사례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지킴이가 치매 질환을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이번 사업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보건 또는 복지만이 아닌 함께 보는 시야를 가질 때 기억지킴이는 향후 만들어질 다른 사업들에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청주 지역 고교생들 지역 요양원 찾아가 말벗 돼주기도

충북광역치매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억지킴이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네 종류의 기억지킴이가 동시에 활동을 한다.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억지킴이’는 장철호 할아버지처럼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주 1회 집을 방문해 충북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치매애기억담기 워크북’으로 활동을 한다. 홀어르신과 1:1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높다. ‘사회공헌 기억지킴이’는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이 거리와 경로당 등에서 치매 예방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행복리더 기억지킴이’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치매 예방 전문 교육을 받은 후 어르신들에게 치매 예방 워크북 활동과 치매 예방 체조 등을 진행한다. ‘청소년 기억지킴이’는 청주 지역 4개 고등학교 학생 38명이 월 1회 지역 요양원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말벗이 되어주는 등 봉사활동을 한다.

충북광역치매센터는 기억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혜자로 참여한 홀어르신 442명에게 치매선별검사를 한 결과 67명(15.16%)의 인지저하자를 발견했다. 이 중 12명은 치매진단을 받았고 46명이 치매진단 대기 상태다.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에 의해 진행된 치매애기억담기 워크북 활동은 치매 고위험군들의 인지저하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권용정 충북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은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이라는 양적 실적도 중요하지만 보건과 복지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연계해 진행했고 이를 통해 홀어르신 중심의 치매 환자 조기 발견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대구 사랑의열매 ‘내 인생의 RE:ply 달기’ 사업

가족·고향 등 매주 주제에 맞게 7단계의 기억 ‘소환’

첫사랑도 떠올려보고 추억 여행 통해 치매 예방

전북 김제에서는 지난 7월 홀어르신 A씨(86·여)가 자택 뒷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약한 치매 증상과 심혈관 질환을 앓아온 A씨의 사망은 무더위에 따른 열사병으로





인한 심실빈맥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은 사망에 이르러도 방치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홀어르신의 37.2%가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홀어르신에게 치매라는 질병은 노년의 큰 걱정거리다. 대구 사랑의열매는 지역 홀어르신의 치매 예방을 위해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와 함께 뇌·인지 회상 프로그램 ‘내 인생의 REply 달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뇌·인지 회상 프로그램은 홀어르신이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는 과정에서 기억력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 영역을 활성화하는 활동이다. 이들은 나의 가족, 나의 고향, 어린시절, 학창시절, 첫사랑, 결혼, 지금의 나 등 매주 주제에 맞게 7단계의 기억 확장 활동을 진행한다. 먼저 주제에 맞는 영상이나 그림을 보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노래와 악기 연주를 하며 과거의 기억을 현실로 소환한다. 떠올린 기억을 춤으로 표현하고, 기억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기억 속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만들기를 해보며 주제에 맞게 놀이를 한다. 마지막으로 워크시트지로 인지 능력을 평가하면 7단계 뇌·인지 회상 활동이 끝난다.

#### 인지 능력 좋아지고 우울증 줄어드는 효과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치매위험군 홀어르신 20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뇌·인지 회상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지 능력 향상과 우울증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강당에 모인 어르신들은 ‘처녀총각’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그때를 아십니까’라는 영상을 보며 기억 저편에 있는 자신의 첫사랑을 현실 세계로 소환했다. 기억나는 첫사랑의 얼굴을 그리며 소녀시절로 돌아가 수줍은 미소를 띠기도 했다. 그리고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얼굴을 붉히며 “오빠 친구를 좋아했는데 얼굴은 가물가물하지만 설레는 마음은 그대로인 거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수경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주임은 “치매위험군 어르신들은 기억력이 감퇴되어 어제 일도 깜빡하는데 음악과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이때 떠오르는 기억을 그림으로 그리며 즐거워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6회 차 활동이 끝난 후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지난 4월 경주에 있는 교촌한옥마을을 다녀왔고, 지난 6월에는 군위군에 있는 ‘엄마아빠어릴적에’를 방문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는 올해 하반기에도 뇌·인지 회상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며 활동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의 회상활동 작품 전시 및 회상여행 사진전을 가질 계획이다.

## 화성시 동부지역 '얼시구~ 절시구~ 건강한 내 인생' 프로그램

지역 어르신 직접 찾아가 치매선별검사 진행

의료진이 함께하는 치매예방 교육 및 고위험군 프로그램 제공

치매는 외적인 증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증상이 경미한 인지저하 어르신들은 적절한 시기에 진단 및 치료 등을 받지 않으면 치매로 본인 및 가족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화성시 동부 지역 60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의 삶을 지원하고자 동탄노인복지관에서는 삼성 '행복모자이크 공모사업'으로 경기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얼시구~ 절시구~ 건강한 내 인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루에도 우리 곁에 수많은 어르신이 지나가는데 그중 치매 고위험군 및 환자가 나의 부모님, 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제는 모든 척할 수만은 없다.

###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치매 안심 화성을 위한 노력에 힘써

동탄노인복지관은 지난 7월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해 화성시 동부 지역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치매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상군 및 고위험군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치매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화성시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200여명을 직접 찾아가 치매선별검사를 진행했다. 이 중 인지저하로 나온 어르신을 지역보건소에 연계하고, 복지관 및 지역사회에서 고위험군 치매 프로그램(8주)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를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개강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군 및 고위험군 치매 프로그램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의료진 및 의료사회복지사가 함께해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상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등 전반적인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료진 공개강좌와 치매안녕교실을 통해 손교구 프로그램, 웃음치료, 미술치료 등을 제공해 치매를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고위험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고위험군인 인지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뇌 활력! 새싹, 쑥쑥, 보강 프로그램(총 8주씩 3회)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의료진 교육 외에 인지재활운동, 인지학습, 심리치료활동 등이 있다.

김호선 동탄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평소 복지관에서 알고 지내던 어르신이 겉모습은 건강하고 활동적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문순성(79세, 가명) 어르신은 "치매 약을 복용하면서 동탄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치매가 더 심각해질까 봐 매우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문순성 어르신은 앞으로 고위험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더욱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주변에는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치매 진단 후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는 어르신이 많다. 이 사업이 어르신이 본인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레인보우 솔루션'

자기 방임 고위험 어르신 찾아 생활환경·영양 개선 레크리에이션 등 7가지 활동 통해 만족도 높여

자기 방임이란 어르신 스스로 의식주 제공은 물론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치매를 앓고 있거나 치매 고위험군에서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학대 유형은 자기 방임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 방임 노인은 2012년 7.1%, 2013년 6.4%, 2014년 8.0%, 2015년 10.1%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자기 방임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의 '레인보우 솔루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기 방임 고위험 어르신을 발굴

해 집 청소, 수리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고 영양 공급을 위해 밑반찬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교육, 인문학 강의, 레크리에이션, 영양교육, 위생교육,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7가지 활동을 하는 레인보우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

### 폐쇄적인 성향 보이다 프로그램 알게 되면 참여도 높아져

양천구에 사는 국해상(73·가명) 할아버지는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 홀어르신이었다.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어 방 안에 가득했다. 창고로 쓰는 방 하나는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고, 방바닥은 언제 닦았는지 모를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방문을 해도 문밖에서만 잠깐 만나고 문을 닫았다.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은 자기 방임 고위험군인 국 할아버지를 끈질기게 설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집안에 쌓아놓은 쓰레기를 말끔히 치웠다. 노후 전등과 이불도 교체했다. 집안 환경이 개선되니 할아버지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다.

노혜민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집에만 있던 할아버지에게 레인보우 프로그램을 소개했더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8번의 활동 모두 참여했다”며 “늘 혼자 지내던 할아버지가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사회와 소통을 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

## 2018 MBC 1318 사랑의열매 캠프, 전국 동시 진행 벽화도 그리고 환경도 지키고

2018 MBC 1318 사랑의열매 캠프가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열렸다. 사랑의열매의 열매톡톡 3기 기자단이 캠프가 진행되는 인천의 벽화그리기 현장과 서울 한강 환경지킴이 봉사활동 현장을 다녀왔다.



### 사랑의열매 열매톡톡 3기 기자단 현장 취재

사랑의열매와 MBC가 공동 주최하는 '2018 MBC 1318 사랑의열매 캠프'가 지난 7월 25일부터 2박3일간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충청, 강원, 경북, 호남, 제주 등 전국 9개 권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참여와 실천을 통해 만들어 가는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캠프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2,0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사랑의열매 대학생 기자단인 열매톡톡 3기는 인천과 서울에서 열리는 봉사활동 현장으로 출동해 참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26일 목요일 인천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로 북적였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앞치마를 걸치고 한 손엔 붓을 들고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느라 분주했다. 이곳은 이번에 진행된 MBC 1318 사랑의열매 캠프 중 하나인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현장이다. 캠프 참가자들은 수련관 실내 곳곳의 벽에 그림 그리기와 진입로에 있는 벽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했다.

### 땀벌에 여러 사람이 협력... 결과물에 만족

캠프 진행을 맡은 안병욱 인천연수구청소년수련관 대리는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자발적 자원봉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알게 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벽화그리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로 3년째 캠프에 참가한 김윤영(18) 양은 "벽화를 그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완성하고 보니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야외 담벼락에 색 입히기를 한 박도현(14) 군은 "땀벌에서 벽에 붙은 이물질을 긁어내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길을 다닐 때 예쁜 벽을 보며 기분 좋게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취재를 멈추고 참가자들과 함께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심은 열매톡톡 3기 기자는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환경 조성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는 "벽화그리기는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닌 참여한 모든 이의 성취물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열매톡톡 기자단이 찾은 두 번째 장소는 한강 뚝섬유원지였다. 지난 7월 27일 진행된 한강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나이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이번 캠프를 담당해 진행한 강태환 한강사업본부 주무관은 "한강 환경지킴이 활동은 쓰레기장 및 분리수거 안내 봉투 나눔, 분리배출 어플리케이션 홍보 등을 하는 것"이라며 "깨끗한



한강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테마로 진행됐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 ‘한강을 깨끗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도

똑똑 한강 환경지킴이로 분리배출 캠페인을 진행한 성사중학교 김준석 군은 “시민들에게 똑똑 한강공원 분리수거장의 위치와 쓰레기가 많은 곳들이 표시된 종이가방을 나눠주고 분리배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환경오염 예방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신목고등학교 우민주 양은 “한강 생물들이 멸종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와 관련된 캠페인도 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캠프에 아이들과 함께 지도교사로 참여한 강남대학교 유주만 선생은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서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친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지킴이 캠프에 참가한 열매특독 3기 이영주 기자는 “분리배출 종이가방 배부활동을 통해 한강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다 함께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활동이었다”고 참가소감을 전했다. ❀

## 대학생 기자단 열매특독 3기 출범 연말까지 전국 나눔현장 찾아 활동



사랑의열매의 공식 서포터스인 사랑의열매 대학생 기자단 열매특독 3기가 지난 6월 8일 사랑의열매 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랑의열매의 다양한 소식과 올바른 기부문화 홍보를 위해 열두 명의 대학생으로 구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히 뛰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블로그 기자단 열매특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열매의 다채로운 사업과 나눔 가치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사랑의열매의 주요 활동들을 블로그와 SNS를 통해 홍보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직접 게재하고 있다. 7월 나눔교육과 역량강화 교육 이수 후 8월 황기순 사랑더하기 거리 모금행사를 지원했다. 10월에는 나눔콘서트 행사 홍보 영상과 인쇄물을 제작해 전달하며 행사 스태프로 참여해 함께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11월 사랑의열매 온도탑 제막식과 연탄나눔봉사에도 참여하고 12월 해단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 배우 채수빈 사랑의열매 광고 재능기부 참여 받은 사랑이 주는 사랑 되었습니다

사랑의열매가 창립 기념 2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광고를 선보인다.

사랑의열매 광고는 그동안 채시라, 윤아, 박수홍, 박인비, 임형주 등 수많은 스타가 참여해 나눔 메시지 전달에 큰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배우 채수빈씨가 바통을 이어받아 나눔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랑의열매가 지나온 20년간의 시간을 전한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던 지난 8월 20일,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랑의열매 홍보물 촬영이 진행됐다. 수많은 광고 스태프 사이로 배우 채수빈씨와 평창버거 CF로 잘 알려진 광고 모델 선우성씨가 보였다. 이날 촬영된 내용은 20년 전, 전화통화로 인연이 됐던 두 사람이 '나눔'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 무더운 날씨와 뜨거운 조명 탓에 스튜디오 안은 찜통 같은 열기를 뿜어냈지만, 힘든 내색 없이 촬영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감성 스토리

9월부터 각종 방송을 비롯해 영화관,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될 이번 홍보물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탄탄한 스토리가 눈길을 끈다. 1998년에 살고 있는 한 아이가 2018년도의 누군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는다. 이들의 통화는 20년간 지속되고, 사랑의열매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그 아이는 성인이 되면서 받았던 나눔을 돌려주게 된다. 그리고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 모임에서 운명 같은 만남이 시작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광고는 20주년을 맞이한 사랑의열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나눔' 속에서 20년간 성장한 주인공의 모습은 곧 사랑의열매의 성장 모습이다. 사랑의열매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길을 내주고, 도움을 받았던 그들이 또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나눔을 확산시켰다.



‘받은 사랑이 주는 사랑이 되었습니다’라는 광고의 카피처럼 20년 전 사랑의열매가 시작했던 작은 사랑은, 2018년 지금 큰 열매를 맺어 더 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채수빈씨, 4년간 유기견·급식 봉사활동 해온 나눔천사**

이번 광고에는 순수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 채수빈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드라마 <여우각시별> 주인공을 맡아 한창 촬영 중에 있는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랑의열매 광고 모델 제의에 주저하지 않고 선뜻 응했다. 학창시절부터 사랑의열매 배지를 가방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반 친구들과 함께 성금을 낸 적도 있기에 친숙했다고. 그래서 모델 제의를 받았을 때 당연히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채수빈씨의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4년 전부터 남몰래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틈틈이 어머니를 따라 급식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오히려 힘이 생긴다는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에너지를 주변에도 조금씩 전하고 있다. 채수빈씨의 봉사활동이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면서,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이들이 생겨난 것이다.

채수빈씨는 “주변을 보면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만, 여전히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역시 이번 광고 참여를 통해 또 하나의 나눔 방법을 알게 됐죠. 광고를 통해 또 한 명의 기부자나 봉사자가 나오고, 그들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을 전한다면 사랑으로 세상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요”라며 기대감을 비쳤다. ❀



착한기업\_CJ

글 박미진 사진 CJ, 사랑의열매, 해당 복지기관



## 아낌없이 주는 문화 교육 '거위의 꿈' 실현시키다

“더 큰 꿈을 키우고,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더 큰 사랑을 실천합니다.” CJ의 사회공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이들의 밝고 행복한 내일을 위한 꿈을 응원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만들어낼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교육 나눔에 앞장서는 CJ가 그려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보자.



### 전국 66만 명 소외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혜택

CJ 하면 어른세대들은 식품기업을, 젊은세대들은 문화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세대에 상관없이 CJ나눔재단의 사회공헌을 떠올린다면, 아동·청소년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든든한 꿈지기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듯하다.

CJ그룹은 ‘교육의 기회가 적어 가난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신념에 따라 2005년 CJ나눔재단을 설립하고 사회공헌에 나섰다. 이후 국내 최초의 매칭 기부 플랫폼인 ‘CJ도너스캠프’를 중심으로



2017년 말 기준(누적)으로 전국 4721개의 공부방(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농어촌분교 등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그 결과 66만 명의 전국의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이 교육의 격차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CJ나눔재단은 현재도 공부방 지원과 창의학교, 꿈키움 아카데미, 임직원 봉사, 온라인 기부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당당히 찾아가고 펼칠 수 있는 다양하고 특별한 기회를 제공 중이다.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를 받는 지방 지역의 교육불균형 해소에 힘쓰으로써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응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와 교사들의 인성 교육도 진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의 환경을 다각도로 섬세하게 지원하고 있다.



###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창의력과 자존감을 키우는 문화창작체험  
150명으로 시작해 올해는 1,000명에게

CJ는 문화의 힘을 믿는 기업이다. 음악과 공연, 영화 등의 문화 창작 체험이 아이들의 숨어 있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끌어내고, 친구와 함께 무대 주인공이 되는 시간들을 통해 사회성을 키운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을 찾고, 꿈을 향해 성장하는 기회가 아이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존감을 높여

준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CJ가 창의학교 운영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다양한 문화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다.

창의력과 자존감을 키우는 문화창작체험 과정인 창의학교는 2013년 연 150~200명의 수도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해에는 아동과 지방권역까지 참여범위를 넓혀 750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1,000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창의학교는 음악 부문, 영화 부문, 디자인 부문, 전남지역 부문으로 크게 4개 분야다. 각 분야별로 전문 기업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12주 동안 주 1회 2시간 30분씩 진행한 뒤 아이들만의 감성이 담긴 성과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 영화 시나리오부터 연기까지 자기들 힘으로... 영화제 열어

2018년 7월 7일 오후 3시 용산 CGV에서는 '창의학교 2018 영화제'라는 아주 특별한 영화제가 열렸다. 모씨네(Mocine) 사회적협동조합이 담당하는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스테이지 영화 부문에 참여한 10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단편영화가 상영된 것이다. 아이들이 시나리오 작가이자, 연기자, 촬영 스태프, 감독이 되어 완성한 영화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커다란 극장 스크린을 통해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신기해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이날 상영된 5~7분의 창작 영화 제작을 위해 아이들은 12주 동안 특별한 경험을 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영화 촬영 현장을 견학한 이후 머리를 맞대 이야기의 뼈대를 만들고, 등장인물과 사건, 장소를 넣은 시놉시스와

장면별 대사를 넣은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이후 콘티 짜기까지 마친 뒤 연기와 촬영을 하며 영화를 만들었다.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상상이 눈앞에 현실화되는 과정들은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꿈을 찾고 이뤄가는 과정을 연상케 했다. 그리고 영화를 멋지게 만들어낸 것처럼 아이들에게 ‘꿈은 이룰 수 있다’는 값진 믿음을 주었다.



### 뮤지컬과 댄스, 곡도 직접 써서 공연무대 올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어린 아직 꿈을 꾸고 있는 작은별/ 어떤 것도 난 할 수 있어/ 내겐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 친구야 노래하자/ 꿈꾸는 너를 보여줘/ 친구야 손을 잡고/ 우리의 행복한/ 내일을 향해’

꿈나무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이 에듀테인먼트 사회적기업 두팔로(주)의 지도하에 함께 작사작곡한 ‘꿈’이라는 창작곡의 가사다.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친구와 손을 잡고 행복한 내일을 향해 가는 우정을 노래로 만들었다.

창의학교 음악 부문에 참여한 15개 공부방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을 담은 가사와 멜로디에 울동을 더해 7월 21일 서울시 구로구 오류 아트홀의 무대에 올랐다. 친구들과 함께 공을 들여 만든 뮤지컬과 댄스, 중창 및 합창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 아이들이 살고 싶은 집 직접 디자인한 드림하우스

문화예술NGO인 예술과 시민사회가 진행한 디자인 부문에 참가한 10개 팀은 ‘드림하우스 빌리지’라는 작품을 발표했다.

아이들이 살고 싶은 집과 마을을 직접 디자인해 선보인 작품이다. 아이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집이라는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집의 구조를 파악해 자신들의 바람을 담아 작지만 입체적인 집을 만들었다. 또 집과 어울리는 가구를 디자인하고, 컬러를 입히고, 소품을 배치하는 등의 작업을

을 통해 예술과 지식, 감각과 정서의 융합을 놀이처럼 즐겼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바람을 담아 탄생한 집은 달랐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자가 지붕을 장식하는가 하면, 다양한 물고기와 별이 가득한 자연을 품은 집도 있었다. 자유로운 상상과 즐거움이 가득한 드림하우스가 준 행복한 시간은 사진 갤러리를 통해 소개되었다.

###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전남

전남 낙후지역 방과후 돌봄 청소년들 대상

사랑의열매 지정기탁사업으로... 문화 격차 해소

지방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적 경험과 체험은 도시의 아이들만큼 흔한 일이 아니다. 즐길 수 있는 관련 시설은 물론 배울 수 있는 인프라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전라남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면적의



12.3%를 차지하고 있지만 7.1%의 문화기반시설만 갖추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이 36.1%인 것을 감안하면 전남은 전국 하위 수준인 셈이다. 이러한 지역적 격차와 불균형은 곧 청소년들의 문화적 격차로 직결되어 지역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채워보지 못하고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다.

CJ나눔재단은 전남의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성, 문화적 소양, 창의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 2억 원의 비용을 들여 사랑의열매 지정기탁사업으로 지난해부터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전남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복지재단을 통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라남도 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해 가며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 4개월간 행복 땀방울로 만든 꿈의 무대

창의학교 전남의 프로그램은 국악과 연극, 대중음악 3개 분야의 문화예술에 꿈과 끼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우선 선발하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교실 및 동아리별로 신청을 통해 선발했다.

선발된 아이들은 4개월 동안 꿈을 향한 행복한 여정을 경험했다. 서울 CJ에서의 1박 2일 동안 진행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국악은 창극 제작, 연극은 창작뮤지컬 제작, 대중음악은 창작곡 제작 등 분야별로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친구들과 협력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 공연을 준비했다. 특히 1박 2일 숙박 형태로 진행된 최종리허설 시간 동안 집중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기량을 성숙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그렇게 꿈을 위해 흘린 아이들의 진한 땀방울과 간절할 소망은 '꿈스테이지'라는 무대를 통해 빛을 받았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치며 꿈을 실현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다.

창의학교 전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 1기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2기 프로그램을 통해 238명을 발굴하고 육성했다. 프로그램 진행 결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기 대중음악 부문에 참여한 학생 2명이 SBS영재발굴단 밴드스쿨 오디션에서 최종합격했고, CJ지니어스 장학생에 2명이 선발되어 4,0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성과에 힘입어 9월부터 12월까지 3기가 활동할 예정이다.



## CJ도너스캠프 인성학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지혜  
자아 발견과 행복한 관계로 자존감 회복

CJ나눔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CJ도너스캠프 인성학교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 교사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 나를 찾아가는 여정 '청소년 인성학교'

청소년 인성학교는 공부방 대상 청소년들이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는 2박 3일 프로그램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 아이들은 특강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는 법과 자신감을 키우는 법, 차분함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법과 좋은 친구가 되는 법 등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자아를 만들고 자존감을 키우게 된다.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성학교'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열린 '인성학교 베트남'이 그 예다. 아이들은 베트남의 취약계층 커뮤니티 SOS 빌리지와 CJ그룹의 베트남 사업장, 세계 속의 한류를 체험한 MAMA 콘서트 등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강점과 자신감을 얻는 특별한 경험을 얻었다. 가족 인성학교는 대화가 필요한 부모와 자녀를 아름다운 힐링 여행지로 초대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서로가 익숙한 집이라는 공간과 일상을 떠나온 가족은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눈물과 웃음이 함께한 대화들을 통해 관계 회복의 시간을 보낸다.

대화를 잘 나누고, 가족을 바라보는 인식 등을 알아보며 가족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고민한다. 바쁜 일상에 쫓겨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눈 것도 오래전 일이었던 가족들은 숙소에서 정성 담긴 따뜻한 밥을 지어 함께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통해 관계를 풀고 회복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 지친 공부방 교사들을 위한 힐링 여행 '교사 인성학교'

"생각했던 것보다 교육이 너무 알차서 즐겁게 몰입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진행된 CJ도너스캠프 교사 인성학교에 참가했던 공부방 교사들의 참여 소감이다.

소감에서처럼 캠프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힐링을 넘어 지친 교사들의 마음을 보듬고 스스로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교사 인성학교는 CJ나눔재단의 사랑의열매를 통한 지정기부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의 공부방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채워주는 응원 캠프다.

교사 인성학교는 ‘매직테라피’ ‘예술 힐링 콘서트’와 같은 신개념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의 마음을 보듬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아동을 위한 감정 조절법, 아동과의 소통 및 공감을 위한 감정 표현법을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해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교사가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했다. 유명 저자들을 초대해 “통찰의 비결은 일상의 발견에 있다” “아이들이 다른 관점을 갖고 표현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연을 통해 아이들과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전달했다.

알찬 교육 후에는 설악산 명상길과 국립공원을 방문해 푸름 가득한 여름 산의 기운을 가득 채웠다.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지역 특산물을 먹고 맛보는 즐거움도 누렸다.

2박 3일의 짧지만 알찬 힐링 여행의 끝, 선생님들의 얼굴은 처음보다 많이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 행복한 에너지는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 영글로벌리더 영어캠프

제주에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체험 마당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 실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상의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취약계층 아이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방학에도 일반 아이들과 같은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가 교육부 국립국제교

육원 영어교육센터, CJ나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YOUNG GLOBAL LEADER’ 영어캠프는 CJ ENM이 취약계층 아이들의 특별한 방학을 위해 사랑의열매의 지정기탁사업으로 후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를 진행하는 것. 이를 통해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 창의적인 놀이와 제주 속살 찾아가며 즐거운 영어 탐험

올해의 영글로벌리더 영어캠프는 7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의 주도하에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내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층 만들기나 피자 만들기, 자동차 조립교실, 코딩 수업, 게임을 즐기는 축제인 카니발 프로젝트 등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활동과 영어를 접목해 눈길을 끌었다. 문화탐방의 시간에도 아이들은 시종일관 흥미로워했다. 수월봉과 주상절리, 여미지 식물원, 꽃자왈 등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게임을 즐기며 소중한 자연의 가치를 몸소 체험했다.

처음에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던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감을 갖고 영어를 사용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 그것이 CJ 사회공헌이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닐까. 🌸

# 잡지 <보:소> 만든 정신장애인 보:소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잡지를 만든다. 조현병 등 정신과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편견에 맞서 잡지라는 매개체로 소통을 하고 있다. 혼자 숨어 지내지 않고 세상과 이야기하며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는 <보:소> 매거진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 ‘보통을 넘어 소통으로’… 그들의 이야기 다뤄

정신장애인이란 우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이 정신과에 다녔다는 사실을 숨긴다. 정신장애인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 경험은 정신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위축시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취업도 어렵고 집안에서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지낸다. 보통 사람인 이들이 보통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자 <보:통>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매거진 제작 프로젝트인 <보:소> 매거진을 발행했다.

정신장애인지원시설인 김·넷하우스는 지난해 부산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보고만 있어도 통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보:통> 매거진을 만들었다. 잡지를 만들면서 정신장애인들은 이웃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려 노력했다. 그리고 올해는 <보:통> 매거진이 이끌어낸 긍정적인 변화들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동하며 소통하기 위해 ‘보통을 넘어 소통으로’라는 의미의 <보:소> 매거진을 만들게 됐다.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신장애인이다. <보:소> 매거진 김효준 편집장도 마찬가지다. 10년 전인 29세 때 환청과 망상으로 인해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김 편집장은 스스로 정신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치료를 거부했다. 사회 적응을 위해 2015년 9월 정신재활시설 김·넷하우스에서 생활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폭력적이다’ ‘미친 사람’ 이미지 개선 노력

그 후 2017년 2월 정신장애인이 만드는 소통매거진 <보:통>을 만들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고 그의 시각으로 사진을 촬영해 보았다. 인터뷰 기술을 배워 인터뷰하고 팀원들과 기사에 대해 토론하며 기자로서 보통의 하루를 살게 되었다. 그리고 1기 기자단의 다수결 거수로 그는 편집장이 되었다.

김 편집장은 “정신장애인을 만나보지 못한 다수의 사람은 뉴스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에만 초점을 맞춰 ‘폭력적이다’ ‘무섭다’ ‘미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며 “정신장애인도 다들 게 없는 ‘보통 사람’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 부편집장은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우리’의 꿈이 담긴 잡지”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고 정신장애인의 삶과 무엇을 꿈꾸는지를 비장애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 1 <보:소> 매거진 기자의 현장 취재 모습
- 2 <보:소> 매거진 기자가 2호 제작을 위해 기획회의를 하고 있다.
- 3 지난 8월 24일 진행된 <보:소> 매거진 제작 기념 평가 간담회
- 4 지난해 발행된 <보:통> 매거진



### 지역 주민들도 제작 참여... 공공도서관·카페에 배포

1년 차인 지난해에는 정신장애인이 직접 이들의 이야기로 매거진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잡지를 통해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소통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해 핵심 참여자가 정신장애인이었다면, 올해는 정신장애인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원이 확대됐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분화된 전문 매거진 제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단의 제작 능력 향상을 위해 심화반, 기초반, 통합반으로 나누어 사진촬영, 글쓰기, 기획 등 기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기획회의와 취재 후 원고 작성, 원고별 레이아웃, 먼 배정, 편집 등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한다. 지난 8월 20일 <보:소> 1호가 발행되어 출판기념회를 갖기도 했다. 이번에 발행된 1호의 타이틀은 '표정'이다. 김경진 부편집장은 "표정은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표현하는 정신장애인의' 줄임말이기도 하다"며 "잡지에는 '얼굴' '삶' '이야기' '치유'라는 네 가지 소주제로 구성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보편적인 정신장애인의 삶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보:소> 매거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미용실, 공공도서관, 카페, 은행, 우체국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배포하고 SNS를 통해 콘텐츠를 소개할 예정이다. 강계정 컴·넷하우스 직원은 "이번에 발간한 <보:소> 매거진이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든 잡지라면 앞으로는 <보:소>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자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향후 재정독립으로 명실상부한 정신장애인의 재능 발굴 매거진이 되길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준 편집장은 "<보:소> 매거진이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잡지, 독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정신장애인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감동이 담긴 잡지가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



### "우리는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김효준 <보:소> 매거진 편집장

"<보:소> 매거진은 부산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우리'의 꿈이 담긴 잡지입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잡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정신장애인도 다름 게 없는 '사람'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병을 받아들이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 과정을 거치는 많은 정신장애인이 있습니다. <보:소> 매거진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매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비장애인은 정신장애인을 보면 '인생 끝났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비장애인이 꿈꾸는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잡지를 통해 비장애인과 소통하며 즐거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착한일터\_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글 홍경기 사진 이신영

# 도둑만 잡는 게 아닙니다 사랑 전하는 나눔 지팡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곤경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바로 경찰이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 존중이 없으면 오랜 기간 갈 수 없는 길이 경찰이기도 하다.  
따뜻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민 곁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를 찾았다.





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을 지키는 지구대 소속 경찰들. 매 순간 치열한 안전 현장에 몸을 맡기는 경찰들이지만 적지 않은 국민은 경찰 하면 무섭고 딱딱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지구대는 무서운 곳이고 경찰들은 가까이하기엔 조금은 먼 존재들. 그러나 이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수많은 안전 현장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지 못할 테니 말이다.

**몇 달 주기로 근무자 바뀌어도 '지구대 이름으로' 선행**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에는 35명의 경찰관이 소속돼 있다. 몇 달 주기로 근무자를 바꿔야 하는 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그래서 뜻을 모아 나눔활동이나 기부를 하기에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기부를 하고 있더라도 함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해 매탄지구대로 발령 난 선배 경찰관이 지구대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사랑의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선배는 "지구대 이름으로 기부활동을 했으면 한다"면서 동참 의사를 물었는데, 모두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정말 좋은 생각이다.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한다.

매탄지구대 오선아 경장은 "저 역시 아이 이름으로 조금씩 기부를 하고 있지만 순환 근무가 이뤄지는 지구대 특성상 같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선배가 제안을 해줬고, 망설일 것도 없이 그러자고 했죠"라고 전했다.

온전히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기부는 새로운 동료가 올 때마다 의사를 묻는다. 번거로울 수 있는 일이지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지구대 동료들의 기부 의지가 높다는 것이기도 하다.

**사랑의열매 통해 매탄동 저소득 2가구에 생활비·의료비 지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만 대하는 게 아니에요.

관할 지역 홀어르신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죠. 그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데 이렇게라도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죠.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 동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매탄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기부한 월급 일정액은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매탄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2가정에 생활비 및 의료비로 지원되고 있다.

매탄지구대는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착한일터에 가입한 지구대다. 윤수원 매탄지구대장은 "나눔이란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스승"이라며 "우리 경찰들이 작지만 조금씩 실천하는 나눔이 경기도 내 나눔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로 지은 지구대 건물, 주민 친화적으로 꾸며**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위해 최근 경찰 조직은 많은 변화를 꾀하는 중이다. 매탄지구대 역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웃이 언제든지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넓히는 한편 열띤 지구대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일반 건물과 유사하게 지었다.

오선아 경장은 "새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민원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으니 훨씬 보기 좋다' '딱딱한 다른 곳과 달리 친근한 분위기가 난다'라는 말을 해요. 제 생각에는 현관에 걸린 '사랑의 열매 착한일터' 마크가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라고 밝혔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씨. 사진 촬영을 위해 짬을 냈던 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끝나자마자 서둘러 우비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선다. "다녀오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등 뒤로 한마디 인사를 나누고는 현장으로 뛰는 경찰들. 보이지 않는 그들의 헌신이 편안한 우리의 일상을 만들고 있다.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신매탄사거리에 위치한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는 35명의 경찰이 매탄1, 3, 4동과 인계동 일부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다.

착한가게가 있는 풍경\_전남 장성

글 사진 조혜원(여행작가)

# 시몬! 너는 아느냐 편백숲 향기를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폭염이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에  
슬쩍 가을이 끼어들었다. 높푸른 하늘과 기울어진 여름을 자연이 더 빨리  
알아채고 옷을 갈아입는다. 가을의 시작점에서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전남  
장성군 편백숲길을 들어가 본다.



조선 8경의 하나로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백암산.  
그곳에 자리한 백양사 산행길은  
장성군을 찾게 하는 이유다.

### 가을 단풍 유명하지만 사계절 수려한 풍경 백암산

백양사를 품은 백암산은 예부터 '조선 8경'의 하나로 손꼽힐 만큼 풍광이 뛰어나다. 매년 가을 백양사 일대에서 '장성백양 단풍축제'가 열리고, 담양 추월산, 순창 강천사 등과 함께 전남의 대표 단풍 명소로 꼽힌다.

가을 단풍으로 유명하지만 사계절 내내 뚜렷이 수려한 풍경을 자랑한다. 봄철 짙은 초록이 되기 전 연둣빛의 싱그러움으로 일렁이는 숲은 봄의 파도 속에 잠기는 듯하다. 잎이 작고 색이 고운 애기단풍은 잔가지가 많아 겨울에 눈이 소복이 쌓여 겨울 설경도 장관이다. 착한가게 '단풍두부' 사장님이 추천하는 길로 산행을 하면 크게 힘들지 않고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 사계절 모두 추천하는 코스는 백양사를 둘러보고 운문암 쪽으로 올라가 약사암으로 내려오는 코스다. 올라갈 때는 완만해 산행하기 수월하고, 약사암에서 내려다보면 백양사를 비롯해 단풍으로 물든 산이 시원하게 펼쳐져 내려오는 길 내내 멋진 풍경을 계속 감상할 수 있다. 반대로 오르면 경사도 가파르고 멋진 풍경을 계속 등지고 걸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산행의 시작점인 백양사는 백제 무왕 33년(632년) 여환선사에 의해 '백암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다. 고려 덕종 3년 '정토사'로 불리다가, 조선 선조 때 환양선사가 법회를 하는 중 하얀 양이 내려와 설법을 들어 '백양사'라 불리게 됐다. 주차장에서 백양사로 들어서는 길은 키 큰 갈참나무가 짙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경내엔 푸른 비자나무 5,000그루가 군락을 이뤄 싱그러움의 기운을 듬뿍 느낄 수 있다.



- 1 독립운동가 춘원 임종국 선생이 1956년부터 조성한 죽령산 편백숲. 피톤치드가 가득한 편백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 2 인공호수인 장성호 주변을 따라 수변 둘레길이 만들어져 호수바람 맞으며 걷기 좋은 길이다.
- 3 장성호를 가로지르는 높이 21m, 길이 154m의 출렁다리가 올해 완공됐다. 장성호를 걷는 또 다른 재미다.
- 4 행복밥상을 차리는 착한가게 단풍두부 정완교 사장. 이곳은 단풍수액으로 만든 단풍두부가 일품이다.



2

3

4

### 물 위를 유영하듯 걷는 장성호

백암산에서 계곡을 따라 흘러내린 물줄기인 황룡강을 막아 조성한 인공호수인 장성호. 호수를 따라 조성된 수변 둘레길은 숲과 호수 사이를 유영하듯 걸닐 수 있다. 장성담 상부에 마련된 주차장에서 수상마을까지 총 7.5km를 다 걸어도 좋고, 출렁다리까지만 갔다 되돌아와도 된다. 장성호는 수상레저를 즐기기에 좋은 호수다. 조정경기장이 있어 운이 좋다면 호수를 가르며 조정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무가 우거진 숲과 호수 사이길에 데크가 잘 조성돼 있어 그늘 아래서 호수 바람을 느끼며 걷기에 좋다. 잔잔한 호수에 주위 풍경이 데칼코마니처럼 반영돼 그림 속을 걷는 기분이다. 나무데크가 끝나고 이어지는 숲길을 가볍게 트레킹하다 보면 어느새 출렁다리에 도착한다. 올해 장성호를 가로질러 154m 길이의 출렁다리가 새롭게 완공됐다. 21m 높이에서 호수를 가로질러 건널 수 있는 짜릿한 재미가 있다. 전설 속 황룡을 형상화한 노란색 출렁다리가 푸른 호수 위를 비상하듯 떠 있다. 바람이 불면 걷는 이의 리듬에 맞춰 잔잔하게 흔들린다.

### 피톤치드 가득한 축령산 편백숲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숲에서 여행을 마무리하려 간다. 넓은 공터에 주차하고 바로 깊고 짙은 숲으로 들어설 수 있다. 사람 키의 몇 배일지 가능하기도 힘든 곧게 뻗은 편백이 뻗뻗하게 들어서 있다. 축령산은 여름과 가을엔 시원한 그늘을, 겨울엔 동화 같은 설경을 만든다. 축령산이 처음부터 이런 멋진 모습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폐해진 숲을 독립운동가인 춘원 임종국 선생이 1956년부터 34년간 대략 2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인공으로 조립한 숲이다. 가뭄이 심할 땐 임종국 선생의 가족이 물지게를 지고 산에 오르며 정성으로 돌본 편백과 삼나무가 무려 596ha(596만㎡)에 달한다. 나무 돌보는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맞아 숲이 다른 이의 소유가 된 적도 있다. 하지만 2002년 산림청이 다시 숲을 사들여 '고(故) 임종국 조림지'로 이름 지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무를 돌보고 사랑한 이의 정성 덕분에 울창해진 숲은 많은 이에게 심과 자연을 선물한다.

넓고 걷기 좋은 길들 사이에 두고 다른 잡목 없이 편백과 삼나무가 등산객을 굽어보는 것만 같은 숲은 압도적이다. 숲 곳곳에 마련된 쉼터와 계곡 옆을 따라 이어진 데크가 있어 어린아이가 걷기에도 좋다. 모든 식물이 피톤치드를 내뿜는데 편백은 그중 가장 많은 양을 뿜어낸다. 피톤치드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면역력 강화, 아토피, 비염, 천식에 좋다.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지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들숨 날숨에 집중하게 된다.

### 행복밥상으로 관광객 입맛 잡은 착한가게 단풍두부

가을 단풍 축제로 유명한 백양사 초입에 위치한 '단풍두부'는 지역에서도 입소문 난 맛집이다. 단풍을 보러 오신 분들이 색다른 경험을 하시고 가면 어떻게 고민하다가 단풍

두부를 만들었다는 정완군 사장. 두부를 만들 때 단풍 수액을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내 단풍두부를 만든 정 사장은 장성의 사계절 풍경에 반해 고향인 순천을 떠나 백암산 아래 터를 잡았다고 한다. 착한가게에 가입해 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는 정 사장은 주위에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후로 신문이나 방송에도 많이 나오게 되고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는 듯한 시선으로 봐주는 분들이 많아져 감사할 따름입니다.” 손님이 식사를 하고 가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장사한다고 했다. 이 집의 인기메뉴인 '행복밥상'은 단체로 오는 단골손님을 위해 내던 메뉴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가면서 항상 너무 행복하다며 이름 지어준 것이 메뉴가 되었다. 전골과 보쌈을 같이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았는데 이것이 대표메뉴가 됐다.

“손님들이 오셔서 여행코스도 많이 물어보셔서 틀날 때마다 산에 오르고, 인근을 다니며 계절별로 좋은 코스를 찾아 손님들께 추천하기도 합니다.”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백암산의 사계절과 장성담 수변 길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정완군 사장님이 알려주는 장성의 여행지로 안내한다. ♡

### 여행정보

#### 단풍식당

주소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115-7  
문의 061-392-1515

#### 백양사

주소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문의 061-392-7502

#### 장성호 출렁다리

주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신흥로 138(장성담 주차장)  
문의 061-390-7252(장성군 문화관광과)

#### 축령산 편백숲

주소 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682  
문의 061-399-1800(국립장성숲체원)

## 가연은 사람들(레 미제라블) 속에서 웃는 남자 그윈플랜이 전하는 나눔의 미소

사람은 누구나 더 크고 의미 있는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노래하는 이상적인 남자, 그윈플랜(Gwynplaine)을 만나보자. '하얀 평원'을 의미하는 이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도 보지 못한 낯선 이름이지만 원작자 빅토르 위고는 유독 이 이름을 좋아했다고 한다. 자신의 유산 '5만 프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대문호의 투영인 듯싶다.

인정 없는 사람들은 가난을 뻔뻔스러움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은 피할 도리가 없는 부끄러움 같은 것인데 말이다. 없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그들이 뻔뻔해서가 아니라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당신 앞에 처지가 어려운 자가 거듭 나타나 도움을 부탁하거나 위의를 말을 떠올리며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의 상황을 십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를 웃게 만들 나눔과 베풀을 행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당신도 그 못지않은 형편이라면 그

의 얼굴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어주기 바란다. 둘 사이에 놓인 민망함이 두터운 우정과 믿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 뮤지컬로 세계 첫 공연 도시를 열둠으로 만든 지난 8월! 우리에게 웃는 남자, 그윈플랜이 다가왔다. 2002년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탄생 200주년을 계기로 그의 작품은 영화와 연극, 뮤지컬 무대의 주요 레퍼토리가 됐다. <레미제라블>과 <노트르담드 파리>가 세계



대도시의 극장에서 연이어 공연되고 있지만 그윈플랜을 주인공으로 하는 <웃는 남자(The Man Who Laughs)>의 명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실제로 이번 서울 공연이 세계 초연이 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악당 조커를 닮은 ‘웃는 모양으로 입이 찢어진’ 그의 흉측한 얼굴을 단번에 사랑하게 된다. 그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이들이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감동적인 나눔의 노래를 불러주었기 때문이다. 기이하게 찢어져서 웃음 이외의 표정은 지을 수 없지만 그 기괴한 모습 이면에 숨어 있는 선량함과 정의로움은 그를 충분히 잘생긴 영웅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뮤지컬 <웃는 남자>는 화제작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위고의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원작을 기반으로 5년에 이르는 충분한 제작 기간과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찍을 수 있는 175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사용해 세계 초연이라는 불완전함을 딛고 단번에 넘버 원, 명무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다. 더욱이 한국 가요계의 대표적인 가수인 박효신과 라이징 스타 김준면(엑소 수호), 여기에 스타성을 갖춘 신예 박강현의 트리플 캐스팅으로 극장은 한류와 여성 관객의 힘을 여실히 느끼게 한다.

#### 악당 조커처럼 입이 찢긴 소년 그윈플랜의 반전 인생

1690년 1월, 삭풍이 몰아치는 포틀랜드만의 삭막한 해변에 버려진 소년. 자신이 누구인지도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소년은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긴다. 살아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뿐인 그 얼어붙은 세상에서 소년은 죽은 어미의 품에 안겨 생명을 잃어 가는 찢어진 아이를 발견하고 구원의 손길을 찾아 나서지만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마을에서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외면뿐이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엾은 두 영혼을 거두어 키우는 것은 인간을 혐오하는 통명스런 악장수 우루수스로 그는 얼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지닌 그윈플랜과 앞을 볼 순 없지만 순수하고

아름다운 데아를 자식으로 여기며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된다. 아이를 기형으로 만들어 귀족들의 애완용으로 팔던 콤프라치 코스에 납치돼 입이 찢긴 소년 그윈플랜은 어느덧 그 기이한 표정 덕분에 유럽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광대로 성장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데아는 영웅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지 못하는 대신 오로지 그의 아름다운 영혼만을 바라보며 그의 눈이 돼 주곤 한다. 하지만 그윈플랜은 ‘눈물의 성’이라는 악명 높은 고문소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이 영국 왕의 계보를 이어야 할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 “가진 것을 나눠 봐,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외쳐

그는 하루아침에 화려한 궁정을 거느리는 왕자로 변모했고 깃털처럼 부드러운 양탄자를 걷는 재미에 활기 가득했던 유랑극단의 생활과 그 속에서 키워온 데아와의 사랑까지 잊으려 한다. 하지만 앤 여왕이 이끄는 상원 의회 현장에서 특혜와 기득권을 주장하는 귀족들에게 왕실의 기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영주들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백성임을 주장하지만 모두 묵살되고 만다.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세워진 것이다’라는 원작의 표현은 좀 거칠긴 해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불법과 의혹을 생각하면 공감 가는 얘기가 된다.

그윈플랜으로 열연하는 박효신의 목소리는 경이로운 악기와 같다. 그는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넓은 음역과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웃는 남자>를 <지킬 앤 하이드> 이상의 뮤지컬로 단정 짓게 한다. 창백한 귀족들을 향해 “눈을 떠, 가진 것을 나눠 봐,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까지”라고 부르짖는 ‘그 눈을 떠(Open Your Eyes)’를 듣는 순간엔 ‘우리’보다 ‘나’만을 생각했다는 그간에 대한 반성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뮤지컬 <웃는 남자>는 예술의전당 초연 무대에 이어 9월, 10월 2개월간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재공연 한다. 🍷

## 모금액 많지만 배분할 곳도 많아 3개 사업팀 모금액과 배분을 한바구니에

지도를 보면 경기도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보인다. 이 큰 톱니바퀴 속에 또 다른 톱니바퀴가 31개가 있다. 제각각 크기와 색깔, 특성이 다르고 독립적이다. 나눔을 매개로 톱니바퀴의 원활유가 되고 있는 경기 사랑의열매를 찾아갔다.

경기도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위로 서울의 1.3배다. 지난해 기준 1,287만 명이 살고 있다. 대기업 500개소와 중소기업 20만 개소가 위치해 있다. 모금액도 사랑의열매 총 모금액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겉으로 보기에 모금 환경이 좋은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의 인구 수나 외국인 수가 전국 1위다. 사회복지시설도 1만 2,000여 개로 전국의 31%가 경기도에 있다. 모금액보다 배분액이 많을 정도로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다.

### 모금과 배분 함께 진행... 풀뿌리기부 활성화에 각종 아이디어 동원

경기 사랑의열매는 거대한 경기도를 나눔으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규모에 비해 일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 특색이 뚜렷한 31개 시군의 욕구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경기 사랑의열매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강학봉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모금사업팀을 3개 팀으로 만들어 지역별로 모금과 배분을 함께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적용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모금상품별 업무분장이 아닌 지역별 모금 담당자를 두어 지역의 특색 있는 모금 이슈를 발굴하고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범열 모금사업2팀장은 “모금과 배분사업을 함께 진행하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처가 빠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강한 모금사업팀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지역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강한 모금사업팀일 것이다. 김태희 모금사업3팀장은 “일도 많아지고 더 바빠졌지만 그보다 우리를 통해 수혜를 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 것 외에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업을 자체 기획사업으로 진행하고, 모금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어젠다를 해결하는 모금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군상공회의소와 함께 모금캠페인을 진행하며, 회원사들에 참여 및 홍보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연중 캠페인 형태로 ‘지자체-상공회의소-사랑의열매’가 함께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연계모금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등으로 나눔활동에 귀감이 되어 회원사들의 나눔리더·리더스클럽 가입 및 법인기부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태희 모금사업3팀장은 “지역 상공회의소 및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이끌어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관내 기관 및 개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모금캠페인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부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 함께 기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청과 동주민센터에 명예의전당을 만들어 기부자를 예우하고 있다.

### 개미천사·눈덩이 굴리기 등 지자체별 브랜드 네임 기부활동

각 시군 또한 브랜드 네임을 정하여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 화성시 ‘지역모금에 날개를 달다’, 용인시 ‘사람중심 나눔도시 용인’, 평택시 ‘나눔의열매를 맺다’, 군포시 ‘나눔행복동행’, 하남시 ‘행복하남2040’ 등 시군마다 특색에 맞게 명칭을 정해 지역 안에서 모금활동을 전개 중이다. 그 안

에서 풀뿌리 기부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개인정기기부 사업을 만들어 브랜드화시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양시는 더 좋은 이웃만들기, 용인시에서는 개미천사, 광주시 1인1계좌갯기, 양평군 사랑의연탄모으기 등 풀뿌리 개인기부가 활성화되고 있다. 기부자가 또 다른 기부자를 소개해 함께하는 눈덩이 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기부자들과 경기 사랑의열매가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맞춤형 기부신청서를 예쁘게 디자인해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성훈 모금사업1팀장은 “기부는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계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부경험은 중요하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첫 기부를 하는 것이

풀뿌리 모금의 시작임을 알기에 경기 사랑의열매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와 광주시, 수원시에서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기부가 이뤄지고 있다. 지방세 오납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금액도 몇백 원에서 몇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풀뿌리 모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 에너지를 감축할 경우 발생하는 탄소포인트를 기부하는 탄소포인트제도 이에 해당한다. 지역마다 꼭 있는 쓰레기 모으는 집은 동네 골칫거리 중 하나다. 악취와 거리 환경까지 해치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클린케어 사업은 주변 이웃들이 함께 기금을 모아 청소와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다. 필요시 대상자 치료도 병행한다.

경기도 내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은 1만 2,000여 곳이나 되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복지기관이 많다. 정보의 접근성과 행정 능력이 떨어져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때마다 사업설명회를 열고 눈높이에 맞는 사업안내서를 별도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 취약계층 개별지원은 물론 근본해결 위한 기획사업도 병행

경기 사랑의열매는 취약계층을 위한 개별지원은 물론 별도의 기획사업을 진행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애 배분사업팀 대리는 “아동청소년 인재육성 지원 사업 및 경제교육 지원 등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대상자가 희망을 안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문화가정 문제는 여성의 영역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가족의 문제로 확대해 접근하고 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매년 1회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선정해 고향나들이를 지원하고 가족문제 해결교육 및 프로그램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강학봉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경기도는 서울의 베드타운이나 변방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경기도가 없으면 서울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더 많은 이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활동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모금문화를 이끄는 경기 사랑의열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대 경기도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슈는 ‘나눔’이다. 경기 사랑의열매가 존재하는 이유다. ❀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7월 23일 용인시, 용인상공회의소와 함께 모금캠페인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백군기 용인시장, 이순선 경기 사랑의열매 회장, 서석훈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 “현장 깊숙이 들어가 고민 듣고 소통 세 모금사업팀에 파이팅 정신 주문”

경기도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47개나 된다.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시의 경우 지방의 광역시보다 인구가 많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인구가 많고 지역도 넓으니 일도 많고 탈도 많다. 경기 사랑의열매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강학봉 사무처장은 호탕한 성격에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어려운 난관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힘이 있다. 적은 인원으로 최대 효율을 얻기 위해 모금사업팀을 3개로 운영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다. 강



학봉 사무처장은 “지역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소통해야 한다”며 “모금을 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뛰어다녀 조직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자체와 협력할 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관련된 부서를 찾아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묻고 먼저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모금 영업을 하라는 것이다.

### 마도로스 등 다양한 직업 바탕… 끊임없이 시도

강학봉 사무처장은 마도로스였다. 항해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사랑의열매가 10번째 직장이라고 했다. 다양한 직업들을 거치면서 얻은 경험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했다. 조직의 정체보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자기결정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현장을 대처하는 순발력이 필요하죠. 생명력 있는 사랑의열매가 되려면 이런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 사랑의열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묻자 강학봉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사랑의열매를 믿고 기부를 할 수 있는 신뢰받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성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고 더불어 우리보다 더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보다 사랑의열매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다.

# 지자체·지역 단체와 함께 풀뿌리 모금의 뿌리 심자

사랑의열매의 연간 모금액에서 개인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32.8%. 법인기부에 비해 그 비율은 낮지만 1,969억 원(2017년 기준)에 이르는 개인기부 총액은 유수의 복지단체가 집행하는 사업비 총액을 훌쩍 뛰어넘는다. 개인기부는 소액이 대부분이지만 이것이 모여 소외 이웃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 미국은 개인기부가 72%... 우리는 늘고 있지만 33% 선

지난 6월 취임한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취임 인터뷰에서 '풀뿌리 기부문화 활성화'를 강조했다. 예 회장이 말하는 바람직한 기부문화는 다액소수(多額少數)가 아닌 소액다수(少額多數)의 형태다.

'Giving USA'가 지난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의 기부총액 3,900억 달러(417조 원) 가운데 개인기부가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개인기부자와 기부금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법인기부 대비 32.8%(2017년 기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려면 예 회장이 지적했던 소액다수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열매는 풀뿌리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지역연계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도(道)나 시(市) 단위 지자체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사회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자체 모금 전용계좌를 개설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한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고 있다. 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착한가게, 착한가정, 착한택시 등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복지자원 개발과 곳곳에 숨은 수혜자들을 찾아내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는

모금활동을 전개할 때 '기부한 금액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을 홍보해 나눔문화를 전파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랑의열매는 지자체와 협의해 모금 목표액을 정한 후 약속된 기간 내에 목표치를 달성하면 사랑의열매에서 매칭금을 추가로 더해 지자체에 전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여수시다. 전남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여수시 27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연합모금을 진행해 1억 9,900여만 원을 모금했다. 여기에 전남 사랑의열매가 매칭금 5,400여만 원을 더해 지난 3월 여수시에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 2억 5,300여만 원을 전달했다. 모금액은 지역의 위기가정 서비스 연계, 긴급지원,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

## 사랑의열매, 지자체·지역 복지기관과 연합모금 진행

사랑의열매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연합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서울과 울산, 부산 사랑의열매가 추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7월 5일 사회복지기관 총 5곳과 연합모금 협약을 맺고 모금과 나눔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이 어려운 기관 및 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돕고 모금 목표액을 달성할 경우 사랑의열매에서



추가로 매칭금을 지원해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다. 울산 사랑의열매도 7월 9일 울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5곳과 연합모금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기관에서는 울산 사랑의 열매의 모금 컨설팅을 받고, 사랑의열매 브랜드 사용을 공유하게 되며 모금된 규모에 따라 매칭금을 지원받게 된다. 부산 사랑의열매도 지난 8월 6일 연합모금사업 파트너기관 공모에 선정된 사회복지기관 5곳과 연합모금 협약식을 가졌다. 이렇게 기관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하기 어려운 곳을 돕는다는 취지는 모금 영역 확대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올해 지역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와 함께 연계모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경제인들과 근접해 있는 상공회의소와 지역의 나눔문화 정착 및 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인들의 사회공헌 의지를 높이고, 직원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착한일터 등으로 기부를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풀뿌리 모금 활성화의 또 다른 방법은 정기 기부자 확충이다. 강원 사랑의열매의 군사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게 군인을 기부의 자리로 끌어내는 노력은 모범적인 모금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강원 사랑의열매는 1군 사령부와 협약을 맺고 '전우사랑기금'과 '호국영웅기금' 모금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3만 2,000여 명의 군인이 참여해 9억 원의 기부를 이뤄냈다. 충남 사랑의열매도 지난 4월 육군본부와 함께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 나눔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계속 이어져... 모멘텀 잘 살려야

이렇게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방법으로 풀뿌리 모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모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만 대상을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삶을 사는 우리 이웃을 돕는 일이라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강학봉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모금을 영업으로 표현했다. 그는 "영업맨의 마인드가 있어야 모금 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풀뿌리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폭넓은 연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착한채소, 착한과일 등 농업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 관련 단체와 함께 모금활동을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생산자는 정직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는 구매액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 행위가 지속되는 한 기부는 이어질 것이다.

자원봉사나 기부 등 아무리 작은 나눔이라도 한 번 경험을 하면 '나눔 중독'이 된다고 한다. 첫발을 들여놓기가 어렵지 한 번 시작되면 나눔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다. 풀뿌리 모금 활성화의 시작은 나눔의 첫걸음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계 없는 다양한 연계모금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이가 나눔을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 돼지 키워 번 소중한 돈으로 나눔 실천 우리 애들이 보고 배웠으면 해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모든 사육 농장을 하고 있는 안정용입니다. 모돈은 어미 돼지를 말합니다.

1,5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더워 돼지에게 물 뿌려주고 관리하느라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장 일만도 바쁘데 나눔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 부담스럽네요.

제가 아이가 여덟입니다. 아들이 일곱이고 딸이 하나 있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니 고마울 뿐입니다. 부모로서 이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상생'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에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입암면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예산이 없어 딱히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함께 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전북 사랑의열매에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 아이들의 학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입암면에 있는 대흥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선배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2012년부터 장학금을 주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도 입학생 15명에게 30만 원씩 450만 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선진국의 발전된 모습을 체험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해외로 수학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5~6학년 아이들을 2년 주기로 보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났던 2014년엔 보내지 못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매년 경비로 수천만 원이 드는 일이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시골 작은 학교라고 해서 '우물 안 개구리'로 살면 안 됩니다. 세계를 품는 꿈이 큰 아이들로 자라야죠.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운동 겸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등산로도 만들었습니다. 입암면

왕심마을에 있는 비룡산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걷기 좋게 만들었죠. 한 4km쯤 될 것 같은데요. 제 사비를 털어 길을 정비했더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상생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면 싸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기쁘기 때문에 나눔을 하는 것이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빠보다 더 이웃과 상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눔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



## 제6회 초·중·고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10월 12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사랑의열매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 초·중·고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이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나눔공모전은 나눔을 소재로 한 영상을 감상한 후 시, 일기, 편지, 수필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감상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영상은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

or.kr) 및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제6회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을 검색해서 감상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나눔공모전은 민간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 내 나눔교육을 확산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나눔'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치를 지닌 사람으



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자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또한 나눔공모전은 학생들이 '나눔'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1만 4,926건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그 중 개인 1,379명, 단체 45개교, 교

사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모모금회는 12월 3일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제6회 나눔공모전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교육부장관상)을 포함하여 총 1,555개 상에 대한 상상을 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작품은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 수록할 계획이다.



### 삼성카드와 함께 '착한가게' 맞춤형 홍보지원

사랑의열매(회장 예종석)는 삼성카드(대표 원기찬)와 함께 '착한가게'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8월 23일 체결했다. 사랑의열매 '착한가게'는 중소기업자들 매출액의 일부(월 3만 원 이상)를 정기기부하는 프로그램. 8월 현재 전국적으로 2만 5,000여 가게가 가입해 있다. 삼성카드는 고객들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이용 가능성이 높은 매장의 할인 혜택을 선별해 카드 소지자에게 휴대폰 문자와 어플을 통해 소개하는 '삼성카드 LINK'에 '착한가게'의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카드는 삼성카드 홈페이지 내에 '착한가게'를 안내하는 페이지를 신설해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 KDB꿈작소, 청소년·장애인 공간 구축 지원금 전달

사랑의열매와 KDB나눔재단은 지난 8월 22일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공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2018 KDB꿈작소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로 출범 11주년을 맞는 KDB나눔재단은 KDB산업은행이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7년 10월 설립했다. 'KDB꿈작소'는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랑의열매는 2014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해 64개의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등을 진행해 총 15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지원금의 일부는 KDB산업은행 임직원들의 '착한일터' 기부금을 통해 마련됐다.



**중산물산, 상생과 장애아동가구 지원 위해 3,000만 원 전달**

중산물산(대표 정연섭)은 지난 8월 13일 동작구 저소득 장애아동 25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3,000만 원을 서울 사랑의열매(회장 윤영석)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동작복지재단과 연계해 동작구 관내 저소득 장애아동 25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중산물산은 2013년을 시작으로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6년간 약 1억 2,000여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2018시원한 여름나기 캠페인 성공적으로 마쳐**

서울 사랑의열매는 혹서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6일간 추진되었던 '2018 시원한 여름나기' 모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무더위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된 '2018 시원한 여름나기' 모금 캠페인에서는 '360퍼스펙티브' 등 7개의 기업과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4명, 개인 기부자들이 동참해 총 1억 8,195만 8,198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이 모였으며, 9개 사회복지기관에 배분했다.



**애터미, 홍천 복지시설 4곳에 4,000만 원 기부**

애터미(주)는 지난 8월 10일 도내 사회복지기관 4곳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강원 사랑의열매(회장 한만우)를 통해 전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홍천청소년수련관, 홍천군노인복지관,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초록반디마을의 장애인 프로그램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만우 강원 사랑의열매 회장은 "애터미가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여 이웃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재춘충청향우회, 폭염 어르신들 위해 삼계탕 150마리 전달**

재춘충청향우회(회장 한금동)는 지난 8월 11일 강원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인 늘푸른화수원에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늘푸른화수원 내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을 위해 삼계탕 재료인 닭 150마리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한금동 재춘충청향우회장은 "폭염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회원들과 힘을 모아 삼계탕을 제공해 드리게 되었다"며 "무더운 여름 건강히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네트워크 역량 강화 지원**

경남 사랑의열매(회장 한철수)는 지난 7월 27일,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성공적인 자립과 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총 3,800여만 원이 지원된다.



**경남병원간호사회, 9년째 훈훈한 나눔 실천**

경남병원간호사회(회장 이종임)는 지난 8월 7일 경남 사랑의열매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경남병원간호사회 회원들의 회비로 마련된 것으로 경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창원과 김해 지역 저소득·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종임 경남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이웃과 함께하는 경남병원간호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애터미, 마라톤 행사로 조성된 4,000만 원 기부**

애터미는 지난 7월 4일 경주 온정마을 은혜원 등 경주시에 소재한 소규모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경북 사랑의열매(회장 신현수)에 4,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애터미가 기부한 성금은 지난 5월 애터미 회원들이 달린 거리의 누적만큼 애터미가 기부하는 ‘애터미런’ 마라톤 행사를 통해 조성된 기금의 일부로, 경상북도 경주 지역의 시급한 사회복지 욕구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달되었다.



**울품, 초복 맞아 2,700만 원 상당 닭고기 기부**

닭고기 가공업체 (주)울품은 지난 7월 12일 경북 사랑의열매(회장 신현수)에 2,700만 원 상당의 닭고기 5,800마리를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한 닭고기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심사 인증을 거쳐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주)울품 자사 제품으로 초복을 맞아 더운 여름을 나고 있을 소외 이웃들에게 힘을 주려고 마련했다. 변부흥 (주)울품 대표는 “어려운 이웃이 건강한 여름을 나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



### 하나금융투자, 기부서비스 적립금 300만 원 전달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8월 8일 광주금융센터에서 하나금융투자 기부서비스로 적립된 기금 3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회장 한상원)에 전달했다. 하나금융투자 기부서비스란 하나금융투자 신규 고객에 한해 펀드판매보수 등 회사 수익의 20~30%를 고객의 명의로 고객이 지정한 공익기관에 기부하는 서비스다. 현재 참여자는 5명으로 지금까지 적립된 기부금은 총 300만 원이다.



###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 사랑의열매 명예회장 추대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8월 9일 광주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광주 사랑의열매 한상원 회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이 시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추대패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소외계층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인데 광주 사랑의열매의 복지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광주 지역 사회복지 지원 사업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공동모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높아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대구



### 우리텍, 소선나눔기금 장학금 3억 4,000여만 원 지원

대구 사랑의열매(회장 함인석)는 지난 8월 10일 '소선나눔기금'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주)우리텍은 대구 사랑의열매에 10억 원을 기부하며 5년간 총 50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대구 사랑의열매는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 분야 대학(원)생 8명에 2,000만 원씩 총 1억 6,000만 원을, 중고등학생 18명에 500만 원씩 총 9,000만 원, 아동시설 퇴소 청소년 20명에 8,700만 원 등 총 46명의 학생에게 3억 3,700만 원을 전달했다.



### 대구상의, 소규모 복지기관에 1억 2,500여만 원

대구 사랑의열매는 지난 8월 1일 회의실에서 지역 내 소규모 복지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 복지기관 29개소에 1억 2,5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선정된 기관은 40인 이하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이용시설 중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이 2억 원 이하인 소규모 복지기관 29곳으로 4월부터 신청, 접수, 심사를 거쳐 성금이 지원됐다.



**전국 첫 착한시의회 탄생... 세종시의원 18명 착한가정 가입**  
 전국 최초로 착한시의회가 탄생했다. 세종특시의회(의장 서금택)와 세종 사랑의열매(회장 홍영섭)는 지난 7월 31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착한가정 단체 가입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 가입식은 명사 착한가정 릴레이 캠페인으로 6명의 시의원이 가입한 가운데 제3대 서금택 의장이 당선되면서 시정 3기 세종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시의원들이 착한가정에 전원 가입, 단체 가입식을 진행하게 됐다.



**KEB하나은행, 세종시에 폭염구급상자 전달**  
 KEB하나은행은 지난 7월 30일, 세종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구급상자 421개를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KEB하나은행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행사로 이번에 후원된 폭염구급상자는 관내 무더위 쉼터 421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KEB하나은행이 시민들을 위해 보여주시는 배려와 성의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S-OIL, 2억 2,6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백미 전달**  
 에쓰오일울산복지재단은 지난 7월 23일 울산시청에서 사회복지 시설 및 저소득가구를 위한 성금과 백미 등 2억 2,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울산 사랑의열매(회장 장광수)에 전달했다. 울산 사랑의열매에 기탁된 성금 중 1억 2,700만 원은 울산 지역 장애인단체 및 시설 13곳, 보훈단체 10곳과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된다. 또한 9,900만 원 상당의 백미 2,020포(20kg)는 울산 지역 저소득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울산차세대기업인클럽, 나눔리더스클럽 '울산1호' 가입**  
 울산차세대기업인클럽(NECUS)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8월 7일 울산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하는 울산 나눔리더스클럽 1호에 가입했다. 네커스는 영후계인 또는 2세 경영인의 상호 교류 증진과 경영활동 전반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6월 창립됐다. 네커스 강승범 회장은 "앞으로도 차세대 기업인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상회의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대전 사랑의열매(회장 안기호)는 지난 8월 8일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성욱)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전 상공인들의 나눔 참여 확대와 기업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고자 체결되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2003년부터 사랑의열매를 통해 장학금·문화생활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일터'에 가입되어 있다.



**방학프로그램사업 복권기금 2억 5,000여만 원 지원**

대전 사랑의열매는 지난 8월 8일 대전지역아동센터에서 복권기금으로 마련한 2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배분금을 대전 지역 내 아동 복지기관 55개소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배분금은 대전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 방학특별 프로그램, 신학기 필요 물품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대전 사랑의열매는 2018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모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화성시 우정읍, 나눔리더 8인 단체 가입 진행**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이순선)는 지난 8월 8일 화성시 우정읍사무소에서 나눔리더 8인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날 나눔리더 가입자는 조오순 화성시의원, 임종덕 우정읍 주무관, 김종원 주민자치위원장, 박상오 가온식품 대표, 한춘택 화산2리장, 김명수씨, 송응섭씨, 박민일씨 등이다. 우정읍은 지난 6월 읍사무소 내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 5번째 아너 회원 가입**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7일 경기 사랑의열매 북부사업본부를 통해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박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 사무실에서 가입식을 갖고 1억 원 기부를 약속해 경기북부 32호, 파주시 5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다. 박 의원의 성금은 베트남 지역 학교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 인천



### 인천 아너 클럽, 어른신 삼계탕 봉사활동 진행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회장 최성규)과 인천 사랑의열매(회장 정명환)는 지난 7월 23일 미추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인천 아너 클럽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최성규 인천 아너 클럽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활동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미추홀에너지네트워크, 성금 2억 3,200만 원 전달

미추홀에너지네트워크 참여 기업들이 지난 8월 16일 에너지 소외 계층을 위해 성금 2억 3,200만 원을 인천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미추홀에너지네트워크는 인천에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 23개소가 협력해 자원의 효율과 효과를 돕고 기업사회공헌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지난해 조직됐다. 이들은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집수리, 태양광 발전, LED등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남



### 영광군 최초로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

전라남도 영광군 최초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다. 영광군 1호 아너 회원인 김은규 염산 제일의원 원장에 이어 지난 7월 27일 부인 이화영 여사도 전남 사랑의열매(회장 허정)를 통해 아너 회원에 가입한 것. 이화영 여사는 “항상 베풀고 이웃과 함께하는 남편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웠는데, 남편과 함께 좋은 일을 같이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가입소감을 밝혔다.



### 여수·순천 아너 회원들 삼계탕 봉사활동

전남 사랑의열매 여수·순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모여 지난 7월 27일 여수 한려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삼계탕을 직접 만들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여수 1호 아너 회원이자 자산어보회집 김경수 대표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만으로도 이렇게 뿌듯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너 회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더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



### 전북 착한가게 1,600호 돌파

전북 사랑의열매(회장 김동수)가 진행하는 전북 지역 착한가게가 1,600호점을 돌파했다. 1,600호의 주인공은 군산시 경양동에 있는 금강꽃게장. 전북 사랑의열매는 캠페인 시작 후 9년만인 지난 2017년 착한가게 1,000호점을 돌파한 뒤 1년 만에 1,600호를 돌파했다. 정길호 금강꽃게장 대표는 “우리 동네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다”면서 “우연히 알게 되어 착한가게에 가입했는데 1,600호라 더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 임실 '사랑의 집 1호'에 80대 어르신 입주

전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8월 2일 전북 임실군 지사면에서 임실 '사랑의 집 1호' 입주식을 가졌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된 이모씨(83)는 지난해 12월에 예기치 않은 화재로 집을 잃고 친척집에서 임시 거주를 하다 전북 사랑의열매와 지역단체 등의 후원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입주자 이씨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손자를 데리고 살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좋은 집에 올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 충남



### 양승조 충남지사, 충남 사랑의열매 명예회장 추대

충남 사랑의열매(회장 이관형)는 지난 8월 7일 충청남도청에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 사랑의열매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어 명예롭고 기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수행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복지 분야에 전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부자 예우 및 나눔 전도사 역할을 하며 나눔문화 확산,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충남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공주시 착한가게 단체가입식 진행

충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8월 22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착한가게 단체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날 가입식은 김정섭 공주시장, 박은희 충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착한가게 가입 업소 대표자들, 충남 사랑의열매 및 공주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착한가게로 등록된 곳은 금강온천, 눈술문화, 뉴퍼스트학원, 도담아동발달지원센터, 햇살심리언어발달센터, 박진숙심리상담센터, 토끼와거북클리닉, 안경하는날, 연춘당의원 등 총 9곳이다.



**에라토, 청주시 저소득층에 7,100만 원 상당 물품 전달**

(주)에라토는 지난 8월 8일 충북 사랑의열매(회장 이명식)에 도자기 접시 및 머그컵 등 7,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전달된 접시와 머그컵은 청주시에 소재한 15개 복지관 등을 통해 홀어르신 및 저소득가구에 전해질 예정이다. 명수호 에라토 대표는 “폭염에 지친 우리 이웃들에게 접시와 컵으로 수박 한 쪽, 물 한 잔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마다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열 바른컴퓨터 대표, 충북 나눔리더 1호 가입**

김성열 바른컴퓨터 대표가 지난 8월 18일 충북 나눔리더 1호에 가입했다. 김성열 대표는 2014년 착한가게에 가입하면서 현재까지 충북 사랑의열매에 2,2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외에도 충북NGO센터와 대한적십자사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김성열 대표는 “돈이 있어서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하기 위해 돈을 번다”며 “평생의 목표 중 하나는 10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도나눔봉사단, 착한가게 홍보활동 전개**

제주 사랑의열매(회장 고승화) 도나눔봉사단(단장 신명환)은 지난 8월 14일 제주중앙지하사가 일대에서 ‘착한가게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활동에 착한가게나눔봉사단원 10여 명이 참여해 제주중앙지하사가를 방문, 착한가게 가입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쳤다. 신명환 단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봉사단원들과 함께 나눔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 키움학교, 착한가게 캠페인 동참**

예비사회적 기업 키움학교(대표 이명혜)는 최근 제주 사랑의열매가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키움학교는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착한기업에 가입한 키움학교는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제주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시장·시의회 의장·교육감 ‘나눔리더’ 동시 가입**



전국 최초로 지자체장과 시의회 의장, 교육감이 동시에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지난 8월 20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교육청 교육감이 부산 사랑의열매(회장 신정택)에서 진행하는 ‘나눔리더’ 가입식을 가졌다. 이날 가입식에서는 나눔리더 인증패와 함께 ‘나눔이 커지는 부산, 꿈이 자라는 부산, 희망이 자라는 부산’이 새겨진 부채를 들고 기념촬영도 진행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취임 축하 쌀 133포 기부**

홍순헌 해운대구 구청장이 취임 축하 화환을 대신해 받은 ‘사랑의 쌀’ 133포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부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복지행정의 첫 시작을 알린 홍순헌 구청장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부받은 쌀은 해운대구푸드마켓, 해운대구장애인협회 및 관내 무료급식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p><b>문자기부</b> #9004 (한 통에 2천원)</p>	 <p><b>ARS기부</b> 060-700-1212 (한 통에 3천원)</p>	 <p><b>온라인기부</b> 같이가치 with kakao</p>	 <p>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p>
 <p><b>계좌기부</b>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p>		 <p><b>기념일기부</b>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p>	 <p><b>이벤트기부</b>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p>





#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는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국내 최대의 기부자 클럽입니다.

## 강원 63호

**유영순** 양지말화로구이 대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비 부담 없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싶다. 잘 성장해 훗날의 미래가 되길 바란다.”

## 경북 85호

**임주원** 은척양조장 대표



“경북 사랑의열매와 사회공헌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외 이웃을 보듬는 나눔활동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

## 광주 81호

**김우열** 현대아미스(주) 회장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대구 119호

**김난영** 님



“우리 부부의 나눔이 나눔실천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 대구 120호

**신성철** (주)동원섬유산업 대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되어 나눔으로 행복한 대구가 되길 기대한다.”

## 인천 123호

**윤석재** 현대자동차 선학대리점 대표



“내가 나는 사랑의 씨앗이 더 큰 사랑의 열매로 꽃 피우기를 소망한다.”

## 경기 180호

**엄재문** 님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늘 관심을 가지시는 아버지 모습이 귀감이 되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다.”

## 서울 239호

**김정수** (주)엔알자산파이낸스 회장



“나눔은 서로의 행복이다.”



### 경기 사랑의열매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우달 현대메디칼프라자 대표,  
송찬영 (주)가스트론 회장,  
안병철 (주)지엔씨에너지 대표이사,  
석창인 석치과의원 원장,  
김홍기 거봉산업 대표, 익명



### 전북 사랑의열매

김홍국 하림그룹 대표, 황순이 님



### 대구 사랑의열매

성창환 (주)대덕건설 대표, 익명



# 〈사랑의열매〉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지난호 독자의견

8월호에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화제'입니다. 어르신 이불을 세탁해 주는 행복나눔 빨래방 이야기는 훈훈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르신들 실생활에 진정으로 필요한 이런 사업이야말로 앞으로 더욱 더 많이 시행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김화설 · 서울 중구**

'First Person'을 읽고, 도움을 받던 해남 땅끝지역아동센터 출신 아이들이 10년째 동전을 모아 기부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기특합니다. 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남을 위해 배려하고 나눔활동을 펼쳐 나간다면 따뜻한 사회가 될 겁니다.

**이귀숙 · 부산시 해운대구**

8월을 맞아 특집으로 실린 '독립유공자 유족 돕기'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는데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원받다니 반가웠습니다.

**이춘임 · 경기도 포천시**



## 참여방법

- \* 이메일(E-mail: cckpr@chest.or.kr)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 \* 나눔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한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 기사 및 편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 보내실 때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독자 참여 사은품

독자의견(3명)에 선정된 분에게는 내용 소개와 함께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텀블러



우산



열매 배지, 열매밴드



USB



##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은 '사랑의열매' PC·모바일 페이지에서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하단의 '홍보자료'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http://www.chest.or.kr)



## 동등한 기회, 건강한 성장

꿈꾸는 아이들과 그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  
국내 기업재단 최초 온라인 나눔 플랫폼입니다.

동등한 기회	건강한 성장	즐거운 나눔
<p>전국 공부방의 교육제안서를 통해 어려운 환경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CJ만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제안서</li> <li>- 학업지원</li> <li>- 문화, 체육 교육</li> <li>- 캠프 체험</li> </ul>	<p>세상을 위한 꿈을 스스로 만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창의교육, 인성교육과 소외계층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학교</li> <li>- 인성학교</li> <li>- 꿈키움아카데미</li> </ul>	<p>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모금시스템과 CJ제품, 콘텐츠와 연계된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쉽고 즐거운 나눔 문화를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J 인프라 연계 나눔 참여</li> <li>- CJ ONE포인트 기부 캠페인</li> <li>- CJ 임직원 기부 / 봉사</li> </ul>

## CJ도너스캠프 지난 13년의 성과는

전국 66만명의 공부방 아이들 교육 지원과 국내 최초 매칭펀드 시스템을 시작하여 두배의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p>자원 기관</p> <p><b>4,721</b>개</p>	<p>지원 아동</p> <p><b>666,729</b>명</p>	<p>함께하는 기부자</p> <p><b>360,907</b>명</p>	<p>기부 금액</p> <p><b>130,199,419,230</b>원</p> <p>2005 ~ 2017년 누적</p>
-----------------------------------	-------------------------------------	--	--

# 산소통 같은 존재!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관이 등에 메는 산소통입니다.  
이것 덕분에 화염에 휩싸인 불길을 뚫고 들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방관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장비죠.  
마찬가지로 소방관들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